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예산 3000억 증액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발표

▶▶ 관련기사 3면

내년 새만금 SOC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내년 새만금 예산 복원이 당초 부처 예산 요구액인 6,620억원의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새만금 예산을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은 최종 4,479억원이 확보됐으며, 나머지 2,147억원엔 결국 미반영하게 됐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들과 국민의힘 간사들은 공동 합의문을 통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을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공항 예산은

부처 요구액 대비 67% 복원... 공항, 최대 50% 복원될 듯 이원택 의원 "부대조건으로 도와 협의, 안전장치도 마련 정부 비협조적 태도·여당 1000억 주장 속 증액은 '선방' " 도의회 "아쉽지만 계속사업 이어가는데 큰 지장 없어 다행"

최대 50%까지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액수는 시트를 봐야 알겠지만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부처요구액은 580억원이며, 정부예산안은 11%인 66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또 "공항, 항만, 고속도로, 지역간 연계도로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부대조건으로 전복도와 협의할 것을 달아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새

만금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와 여당의 1,000억원 주장 속에 3,000억원으로 늘린 것은 선방한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예산 증액과 관련 전북도의회는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짬버리 진실규명 대응을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도의원)도 "이번 국회에서의 새만금SOC 예산 3,000억원 증액에 대해 도의회는 전액 복원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새만금공항 예산 등이 증액돼 계속사업을 이어 가는데 큰 지장은 없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 청소년 성장 지원 상호협력

20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와 최영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강영재 전북청조경계획센터장, 한명규 JTV 대표, 김보라 우진문화재단 이사장, 박연미 농업회사법인(주)이레농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4면)

내일까지 전북 서부·순창에 50cm 눈 예상 도, 대설·한파 선제대응

합동회의 열고 취약도로 제설제 중점살포 등 논의

전북도가 도내 전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0일 낮 12시 10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상황 가동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유관기관, 시군이 함께 대설·한파 대비 대책 합동회의를 오후 3시 20분에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전북동부는 21일까지, 전북서부 및 순창은 22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는 21일까지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전북 서부 및 순창은 22일까지 10~30cm, 일부지역은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

전북도는 이번 대설·호우에 빈틈없는 대응과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16개 관계부서, 35사단 등 10개 유관기관 및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도로 제설제 중점살포, 농업시설 붕괴예방 집중점검 및 홍보,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노후주택, PEB 구조물 등 대설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붕괴 우려시 도민들의 선제적 대피를 당부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까지 전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따라, 출퇴근 시간 제설제 집중 살포 등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노약자 등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일대일 관리를 통해 난방 및 건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도내 7개 시·군 럼피스킨 방역대 모두 해제

전북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도내 7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7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소 농가 2,271 농가이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소 사육농가, 관련 축산종사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 사육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 관리 △소 도축 시 입상에 할 등 철저한 검사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농가 차단방역 준수 등 방역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라고 에코시티 이전·신설 확정

학생·학부모 대상 찬반투표 결과... 78.2% '찬성'

도교육청, 2028년 3월 개교 목표 행정 절차 돌입

전라고등학교의 전주 에코시티 이전·신설이 확정됐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라고 주관으로 지난 18~19일 이틀간 진행된 전라고 학부모·학생 찬반 투표 실시 결과, 참여자의 78.2%가 이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라고의 전주 에코시티 이전·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국·공립 일 반고를 대상으로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이전·재배치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전라고가 안정적인 학생 수

급 도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구축 등을 이유로 이전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이전·신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전주지역 고 등학생 배치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창회와 학교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전라고 이 전·개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 의전원법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국립 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립 의전원법 처리를 위해 의사실정을 변경 추가해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과 공 조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 의전원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국립의전원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발표하며 힘을 보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도와 정치권은 국회 법사위의 본회의에 국립 의전원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의회 전라북도의회

더 새로운 전북, 더 특별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힘껏 열겠습니다